

약물 복용 후 체질에 따른 소증 변화에 대한 연구

금나래 · 박세원 · 이용재 · 김호준¹ · 박성식 · 배효상*

동국대학교 사상체질과, 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Abstract

Research about Changes in Symptoms After Taking Sasang Medicin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a-rae Keum · Se-Won Park · Yong-Jae Lee · Ho-Jun Kim¹ · Seong-Sik Park · Hyo-Sang Bae*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¹Departmen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changes in symptoms caused by Sasang medicines.

Methods

We recruited 45 subjects who were classified 15 typical Soeumin, Soyangin, Taeumin and did a survey about symptoms. We split Soeumin into 3 groups and prescribed medicines Palmulgunja-tang, Yanggyuksanhwa-tang, Taeumjowi-tang. We did same process in Soyangin and Taeumin. After taking medicines for 4 weeks, we did a survey about physical changes.

Results

There was no consistent changes in symptoms. But medicines which were not suitable to their Sasang constitution induced known reactions. And medicines which were suitable to their Sasang constitution induced reactions.

Conclusions

Changes in symptoms appeared after taking medicine, but they can be induced by medicine.

Key Words : Soeumin, Soyangin, Taeumin, Palmulgunja-tang, Yanggyuksanhwa-tang, Taeumjowi-tang

I. 緒論

四象人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完實無病, 特異病證 및 素證 등은 체질을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東武 李濟馬는 藥을 쓰는데 있어 知人, 知證이 중요함을 설명하였고¹⁾, 藥물 복용에 있어서는 證을 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²⁾. 證이란 素證과 病證을 통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東醫壽世保元』 및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券』, 『東武遺藁』 등에서 四象人의 평소 증상인 素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으며 素證에 따라 病證이 달라지기 때문에 病證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에 있었던 素證에 대한 연구로는 문헌에 나타난 素證에 관해 고찰한 연구, 病證에 따른 素證의 차이에 관한 연구^{23,45}, 연령대별 素證에 차이에 관한 연구⁶, 체질별 素證의 차이에 관한 연구⁷⁸ 등이 있었다. 체질 藥물을 복용하면 病證은 호전이 되는데, 素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나, 체질 藥물을 복용한 이후 素證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四象人에서 체질 藥물 복용 후 素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대상자 선정 및 그룹배정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정상인 남녀 중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태양인을 제외한 四象人을 각각 15명씩 선발하였다. 四象人 선발시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체질 진단 시스템인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SCAT)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 중 통합 체질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나타낸 체질로 판단하였다.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17-18 “明知其人而又明知其證則應用之藥必無可疑”

2)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8-10 “蓋有病者明知其證則必不可不服藥無病者雖明知其證必不可服藥”

이후 층화블록무작위배정(Stratified Block Randomization)을 이용하여 각 체질을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대상자들의 체질(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층화요인으로 하여 각 층화요인 안에서 세 개의 군이 1:1:1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무작위 배정표에 따라 대상자가 등록되는 순서대로 체질을 확인한 뒤 태음조위탕군 혹은 양격산화탕군 혹은 팔물군자탕군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2. 방법

藥물을 복용하기 전 대상자의 체질별 素證을 알아보기 위해 땀(16개 항목), 소변(25개 항목), 대변(34개 항목), 소화(35개 항목), 수면(22개 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분석하였다. 각 藥물 복용 이후에 체질별 소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풍제약에서 제작된 산재인 少陰人 八物君子湯, 少陽人 涼膈散火湯, 太陰人 太陰調胃湯을 선정하여 팔물군자탕군은 八物君子湯, 양격산화탕군은 涼膈散火湯, 태음조위탕군은 太陰調胃湯을 1일 3회 4주간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소증의 변화는 땀(10개 문항), 대변(12개 문항), 소변(12개 문항), 소화(13개 문항), 수면(10개 문항), 전신(20개 문항) 총 6분류로 이루어진 소증변화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모든 과정은 동국대학교 의료윤리심사기관인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2014-04).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징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에서 문항에 대한 답변은 복수응답으로 하였는데 복용 전 설문지는 마지막에 ‘기타’ 항목을 만들어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복용 전 설문지 답변의 경우 빈도수와 전체 중 백분율, Chi square test를 통해 체질 간 소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복용 후 설문지의 경우 빈도수와 군 내에서의 백분율을 통해 각 四象人

에서 팔물군자탕군, 양격산화탕군, 태음조위탕군 간 문항별 답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복용 후 설문지에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은 그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화없음'으로 처리하였다.

III. 結果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각 四象人 별로 여성 10명씩, 남성 5명씩 선정하여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은 30명(66.7%), 남성은 15명(33.3%)이었으며 전체 평균 나이는 38.6세였다. 또한 소음인의 평균 나이는 37.87세, 소양인의 평균 나이는 40.4세, 태음인의 평균 나이는 37.53세로 나타났다. 약물 투약을 위한 무작위 추출에서 남성이 없는 군은 소음인 팔물군자탕군과 태음인 팔물군자탕군이며, 남성이 1명인 군은 소양인 태음조위탕군이고 나머지 군에서는 남녀가 골고루 섞여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ex			Age(year)
		Male	Female	Total	
Soumin	TJ	3	2	5	37.87±13.34
	YS	2	3	5	
	PM	0	5	5	
Soyangin	TJ	1	4	5	40.40±14.25
	YS	2	3	5	
	PM	2	3	5	
Taeumin	TJ	2	3	5	37.53±15.12
	YS	3	2	5	
	PM	0	5	5	
Total		15	30	45	38.60±13.83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 ± S.D., Abbreviation;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PM = Palmulgunja-tang group

Table 2. Symptoms Before Taking Medicine of Sasangin

Question	Soumin	Soyangin	Taeumin	p-value
Fatigue after sweating	10(22.2)	3(6.7)	1(2.2)	0.001
Usual day sweating rarely, if catching a cold, cold sweat appears and then go stale	3(6.7)	0(0)	0(0)	0.04
Frequency of urination(5~6times a day)	11(24.4)	10(22.2)	3(6.7)	0.006
Irregular appetite	5(11.1)	1(2.2)	0(0)	0.018
Usual day eating a lot	0(0)	6(13.3)	3(6.7)	0.024
Digestibleness and overeating	2(4.4)	8(17.8)	3(6.7)	0.035

Values are expressed as n(%)

2. 복용 전 체질별 소증의 차이(Table 2)

땀에 관한 설문에서는 2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이다'는 소음인 10명, 소양인 3명, 태음인 1명으로 소음인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의 경우 소음인만 3명으로 나타났다.

소변에 관한 설문에서는 '1일 배뇨횟수 5~6회'인 사람이 소음인 11명, 소양인 10명, 태음인 3명으로 태음인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에 관한 설문에서는 3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평소 식욕이 불규칙하다.'의 경우는 소음인 5명, 소양인 1명으로 소음인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많이 먹는 편이다'는 소양인 6명, 태음인 3명으로 소양인>태음인>소음인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의 경우는 소음인 2명, 소양인 8명, 태음인 3명으로 소양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대변과 수면에 관한 설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이 없었다.

3. 복용 후 소증 변화

(Table3, Table4, Table5, Table6, Table7, Table8)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소증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다.

1) 소음인

(1) 팔물군자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땀이 많아졌다' 2가지였으며, 1명(20%)인 항목은 '땀이 줄었다', '땀이 자주 나고 피곤하다.' '손발에 땀이 난다.', '코 밑에 땀이 난다.', '머리와 가슴에 땀이 난다'의 6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대변 전후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다.', '대변을 보지는 않으나 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온다.'의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대변이 묽어졌다.', '설사를 하기도 한다.', '대변 보기가 힘들다.', '대변 본 후 시원치 않다.' '대변이 굳어졌다.', '변비가 생긴 것 같다.', '원래 변비가 있었는데 더 심해졌다.' '대변 후 화장지에 전보다 변이 많이 묻는다'의 10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생겼다.'의 2가지였으며, 1명(2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평소에도 소변을 자주 보았는데 보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 '소변 횟수가 줄었다.', '소변의 양이 적어진 것 같다.'의 4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잠이 잘 안온다.', '낮에도 잠이 한번씩 온다.', '잠을 자주 설치게 된다.', '꿈이 많아졌다.'의 4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전보다 일찍 깬다.', '자다가 자꾸 깬다.',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의 4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간혹 배가 은은하게 아픈 통증이 있다.' 1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속이 미식거린다.', '소화불량이 자주 생긴다.'의 2가지였으며, 응답자가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전보다 소화가 안된다.', '입맛이 떨어졌다.', '뱃속이 부글거린다.', '속이 쓰린 증상이 생겼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의 6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의 3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몸이 무거워졌다.', '나른하고 모든 일이 귀찮다.', '자

꾸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온다.', '손발이 차다.', '열이 난다.', '입이 타고 건조하다.'의 10가지였다.

(2) 양격산화탕군

땀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땀이 줄었다.',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 2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대변이 묽어졌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이 '변화없음',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2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소변 횟수가 줄었다.'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2명(60%)인 항목은 '잠이 잘 안온다.', '낮에도 잠이 한번씩 온다.', '잠을 자주 설치게 된다.', '꿈이 많아졌다.'의 4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전보다 일찍 깬다.', '자다가 자꾸 깬다.',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의 4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4명(8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뱃속이 부글거린다' 1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나른다고 모든 일이 귀찮다.', '피부 발진이 생겼다'의 3가지였다.

(3) 태음조위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땀이 줄었다.'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코 밑에 땀이 난다.' 1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대변이 굳어졌다.'의 3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평소에도 소변을 자주 보았는데 보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의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소변 횟수가 줄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의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자다가 자꾸 깬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잠이 잘 안온다.’, ‘잠이 많이 온다.’,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의 4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입맛이 떨어졌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소화가 안된다.’, ‘속이 허하거나 헛헛하다.’, ‘간혹 배가 은은하게 앓흔 통증이 있다.’의 3가지였다. 전신에 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나른하고 모든 일이 귀찮다.’,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손발이 차다.’, ‘열이 난다.’의 5가지였다.

2) 소양인

(1) 팔물군자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땀이 많아졌다.’의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 ‘땀이 자주 나고 피곤하다.’의 2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대변이 굳어졌다.’, ‘대변을 보지는 않으나 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온다.’의 4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소변의 양이 적어진 것 같다.’,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생겼다.’의 3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잠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잠이 잘 안온다.’, ‘전보다 일찍 깬다.’, ‘평소보다 자는 시간이 많은데도 개운하지 않다.’, ‘잠을 자주 설치게 된다.’의 5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속이 쓰린 증상이 생겼다.’의 2가지였으며, 1명(20%)인 항목은 ‘뱃속이 부글거린다.’ 1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몸이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열이 난다.’의 5가지였다.

(2) 양격산화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 1가지였다. 1명(20%)인 항목은 ‘땀이 많아졌다.’, ‘땀이 줄었다.’, ‘땀이 자주 나고 피곤하다.’의 3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대변을 본 후 시원치 않다.’, ‘대변이 굳어졌다.’의 2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소변횟수가 줄었다.’의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낮에도 잠이 한 번씩 온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잠이 잘 안온다.’, ‘전보다 일찍 깬다.’의 3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4명(8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소화가 안된다.’, ‘더부룩한 증상이 많아졌다.’, ‘소화불량이 자주 생긴다.’의 4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몸이 붓는다.’,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나른하고 모든 일이 귀찮다.’, ‘열이 난다.’, ‘몸이 가렵다.’의 6가지였다.

(3) 태음조위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변화 없음’에 응답한 사람은 4명(80%)이었고, ‘땀이 많아졌다.’,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는 각각 1명(20%)이었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대변을 본 후 시원치 않다.’, ‘대변이 굳어졌다.’, ‘변비가 생긴 것 같다.’가 각각 이었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변화 없음’에 응답

한 사람은 4명(80%)이었고, '소변색이 탁해졌다.'는 1명(20%)이었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변화없음'이 2명(40%)이었고, '잠이 잘 안온다.', '잠이 많이 온다.', '낮에도 잠이 한번씩 온다.', '전보다 일찍 깬다.', '잠이 일찍 온다.'가 각각 1명(20%)이었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변화없음'이 3명(60%)이었고, '전보다 소화가 안된다.', '간혹 배가 은은하게 아픈 통증이 있다.'가 각각 1명(20%)이었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변화없음'이 3명(60%)이었고, '열이 난다.', '피부 발진이 생겼다.', '갈증이 난다.'가 각각 1명(20%)이었다.

3) 태음인

(1) 팔물군자탕군

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 '땀이 자주 나고 피곤하다.', '코 밑에 땀이 난다.', '머리와 가슴에 땀이 난다.'의 4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4명(8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1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대변이 묽어졌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설사를 하기도 한다.'의 2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소변 횟수가 줄었다.'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소변의 양이 적어진 것 같다.'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전보다 일찍 깬다.', '자다가 자꾸 깬다.', '잠을 자주 설치게 된다.'의 3가지이며, 1명(20%)인 항목은 '잠이 잘 안온다.', '잠이 많이 온다.', '잠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꿈이 많아졌다.'의 4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속이 허하거나 헛헛하다.', '속이 쓰린 증상이 생겼다.'의 3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트림이 많이 나온다.', '속이 미식거린다.', '간혹 배가 은은하게 아픈 통증이 있다.'의 3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전보다 피곤하다.' 1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몸이 붓는다.', '나른하고 모든 일이

귀찮다.'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갈증이 난다.', '입이 타고 건조하다.'의 5가지였다.

(2) 양격산화탕군

땀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땀을 흘리지만 상쾌하다.'의 1가지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에서 '대변이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양이 줄었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대변이 묽어졌다.', '대변을 보지는 않으나 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온다.'의 3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의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의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잠이 잘 안온다.', '잠이 많이 온다.', '낮에도 잠이 한번씩 온다.'의 3가지 항목이었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속이 허하거나 헛헛하다.', '뱃속이 부글거린다.'의 2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변화없음'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몸이 무거워졌다.', '몸이 붓는다.',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나른하고 모든 일이 귀찮다.', '갈증이 난다.'의 5가지였다.

(3) 태음조위탕군

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변화없음'이 5명(100%)이었다. 대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대변 보는 횟수가 늘었다.' 1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대변이 묽어졌다.' 1가지였으며, 1명(20%)인 항목은 '설사를 하기도 한다.', '대변을 본 후 시원치 않다.', '대변 전후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다.', '대변을 보지는 않으나 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온다.'의 4가지였다. 소변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1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소변 횟수가 줄었다.’의 2가지였다. 수면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3명(60%)인 항목은 ‘잠이 잘 안온다.’, ‘전보다 일찍 깬다.’ 2가지였고, 2명(40%)인 항목은 ‘전보다 일찍 깬다.’ 1가지였으며, 1명(20%)인 항목은 ‘잠이 많이 온다.’, ‘낮에도 잠이 한번씩 온다.’, ‘평소보다 자는 시간이 많은데도 개운하지 않다.’의 3가지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2명(40%)인 항목은 ‘변화없음’, ‘속이 쓰

린 증상이 생겼다.’ 2가지였고, 1명(20%)인 항목은 ‘속이 미식거린다.’, ‘간혹 배가 은은하게 아픈 통증이 있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의 3가지였다. 전신에 관한 설문 중 응답자가 1명(20%)인 항목은 ‘변화없음’, ‘몸이 무거워졌다.’, ‘몸이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피부발진이 생겼다.’, ‘입이 타고 건조하다.’의 8가지였다.

Table 3.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Sweat)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2(40)	3(60)	2(40)	2(40)	0(0)	4(80)	3(60)	3(60)	5(100)
Increased	2(40)	0(0)	0(0)	2(40)	1(20)	1(20)	0(0)	0(0)	0(0)
Decreased	1(20)	1(20)	2(40)	0(0)	1(20)	0(0)	0(0)	0(0)	0(0)
Fresh after sweating	0(0)	1(20)	0(0)	1(20)	3(60)	1(20)	1(20)	2(40)	0(0)
Sweating a lot and fatigue	1(20)	0(0)	0(0)	1(20)	1(20)	0(0)	1(20)	0(0)	0(0)
Sweating from head at night	0(0)	0(0)	0(0)	0(0)	0(0)	0(0)	0(0)	0(0)	0(0)
Sweating from all over the body at night	0(0)	0(0)	0(0)	0(0)	0(0)	0(0)	0(0)	0(0)	0(0)
Sweating while eating	0(0)	0(0)	0(0)	0(0)	0(0)	0(0)	0(0)	0(0)	0(0)
Sweating from hands and feet	1(20)	0(0)	0(0)	0(0)	0(0)	0(0)	0(0)	0(0)	0(0)
Sweating from philtrum	1(20)	0(0)	1(20)	0(0)	0(0)	0(0)	1(20)	0(0)	0(0)
Sweating from head and chest	1(20)	0(0)	0(0)	1(20)	0(0)	0(0)	1(20)	0(0)	0(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PM = Palmulgunja-tang group

Table 4.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Defecation)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1(20)	1(20)	0(0)	3(60)	0(0)	0(0)	0(0)	1(20)	0(0)
Number of defecation increased	1(20)	0(0)	2(40)	1(20)	3(60)	2(40)	4(80)	0(0)	3(60)
Stool became thin and diminished in quantity	0(0)	1(20)	2(40)	1(20)	0(0)	1(20)	1(20)	2(40)	0(0)
Watery stool	1(20)	3(60)	0(0)	0(0)	0(0)	0(0)	2(40)	1(20)	2(40)
Diarrhea	1(20)	0(0)	0(0)	0(0)	0(0)	0(0)	1(20)	0(0)	1(20)
Defecation difficulty	1(20)	0(0)	0(0)	0(0)	0(0)	0(0)	0(0)	0(0)	0(0)
Being constipated	1(20)	0(0)	0(0)	0(0)	1(20)	1(20)	0(0)	0(0)	1(20)
Hard stool	1(20)	0(0)	2(40)	1(20)	1(20)	1(20)	0(0)	0(0)	0(0)
Constipation	1(20)	0(0)	0(0)	0(0)	0(0)	1(20)	0(0)	0(0)	0(0)
Severe constipation	1(20)	0(0)	0(0)	0(0)	0(0)	0(0)	0(0)	0(0)	0(0)
Stomachache after defecation	2(40)	0(0)	0(0)	0(0)	0(0)	0(0)	0(0)	0(0)	1(20)
After defecation, tissues are more stained with stool	1(20)	0(0)	0(0)	0(0)	0(0)	0(0)	0(0)	0(0)	0(0)
Continuing inclination for stool and more farting	2(40)	0(0)	0(0)	1(20)	0(0)	0(0)	0(0)	1(20)	1(2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TJ = PM = Palmulgunja-tang group,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Table 5.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Urination)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2(40)	3(60)	2(40)	1(20)	1(20)	4(80)	1(20)	2(40)	1(20)
Number of urination increased	1(20)	1(20)	0(0)	2(40)	3(60)	0(0)	2(40)	2(40)	3(60)
Frequent urinating at usual and number of urination increased	1(20)	0(0)	2(40)	0(0)	0(0)	0(0)	0(0)	0(0)	0(0)
Number of urination decreased	1(20)	1(20)	1(20)	0(0)	1(20)	0(0)	2(40)	0(0)	1(20)
Amount of urine increas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Amount of urine decreased	1(20)	0(0)	0(0)	1(20)	0(0)	0(0)	1(20)	0(0)	0(0)
After urinating, cannot feel relieved	0(0)	0(0)	1(20)	0(0)	0(0)	0(0)	0(0)	1(20)	0(0)
Difficulty in urinating	0(0)	0(0)	0(0)	0(0)	0(0)	0(0)	0(0)	1(20)	0(0)
Stink urine	0(0)	0(0)	0(0)	0(0)	0(0)	0(0)	0(0)	0(0)	0(0)
Unclear urine color	0(0)	0(0)	0(0)	0(0)	0(0)	1(20)	0(0)	0(0)	0(0)
Bubble urine	0(0)	0(0)	0(0)	0(0)	0(0)	0(0)	0(0)	0(0)	0(0)
Nocturia	2(40)	0(0)	0(0)	1(20)	0(0)	0(0)	0(0)	0(0)	0(0)
Pain urinating	0(0)	0(0)	0(0)	0(0)	0(0)	0(0)	0(0)	0(0)	0(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PM = Palmulgunja-tang group,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Table 6.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Digestion)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1(20)	4(80)	0(0)	2(40)	4(80)	3(60)	2(40)	3(60)	2(40)
More indigestion than before	1(20)	0(0)	1(20)	0(0)	1(20)	1(20)	0(0)	0(0)	0(0)
Feeling bloated	0(0)	0(0)	0(0)	0(0)	1(20)	0(0)	0(0)	0(0)	0(0)
A lot of bulp	0(0)	0(0)	0(0)	0(0)	0(0)	0(0)	1(20)	0(0)	0(0)
Feeling sick to stomach	2(40)	0(0)	0(0)	0(0)	0(0)	0(0)	1(20)	0(0)	1(20)
Low appetite	1(20)	0(0)	2(40)	0(0)	0(0)	0(0)	0(0)	0(0)	0(0)
Feeling empty in stomach	0(0)	0(0)	1(20)	0(0)	0(0)	0(0)	2(40)	1(20)	0(0)
Feeling heavy at epigastrium	0(0)	0(0)	0(0)	0(0)	0(0)	0(0)	0(0)	0(0)	0(0)
Flatulence	1(20)	1(20)	0(0)	1(20)	0(0)	0(0)	0(0)	1(20)	0(0)
Heartburn	1(20)	0(0)	0(0)	2(40)	0(0)	0(0)	2(40)	0(0)	2(40)
Sometimes slight pain at stomach	3(60)	0(0)	1(20)	0(0)	0(0)	1(20)	1(20)	0(0)	1(20)
Digesting is not very well	1(20)	0(0)	0(0)	0(0)	0(0)	0(0)	0(0)	0(0)	1(20)
Feeling like something is stuck in the thro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Frequent indigestion	2(40)	0(0)	0(0)	0(0)	1(20)	0(0)	0(0)	0(0)	0(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PM = Palmulgunja-tang group,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Table 7.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Sleep)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1(20)	1(20)	1(20)	1(20)	1(20)	2(40)	0(0)	2(40)	0(0)
Cannot get to sleep	2(4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60)
More pick straws than before	0(0)	1(20)	1(20)	0(0)	0(0)	1(20)	1(20)	1(20)	1(20)
Having a nap	2(40)	2(40)	0(0)	0(0)	3(60)	1(20)	0(0)	1(20)	1(20)
Waking up earlier than before	1(20)	0(0)	0(0)	1(20)	1(20)	1(20)	2(40)	0(0)	2(40)
Feeling sleepy earlier than before	0(0)	0(0)	0(0)	0(0)	0(0)	1(20)	0(0)	0(0)	3(60)
Sleeping more than before but not refreshed	0(0)	0(0)	0(0)	1(20)	0(0)	0(0)	0(0)	0(0)	1(20)
Number of awakening while sleeping increased	1(20)	0(0)	2(40)	0(0)	0(0)	0(0)	2(40)	0(0)	0(0)
Sleeping fitfully	2(40)	0(0)	0(0)	1(20)	0(0)	0(0)	2(40)	0(0)	0(0)
Taking a long time before falling asleep	1(20)	1(20)	1(20)	2(40)	0(0)	0(0)	1(20)	0(0)	0(0)
Number of dreaming increased	2(40)	0(0)	0(0)	0(0)	0(0)	0(0)	1(20)	0(0)	0(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PM = Palmulgunja-tang group,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Table 8 Changes after Taking Medicine (Systemic Reaction)

Ques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PM	YG	TJ	PM	YG	TJ	PM	YG	TJ
No change	1(20)	2(40)	2(40)	2(40)	2(40)	3(60)	1(20)	3(60)	1(20)
More tired than before	2(40)	1(20)	1(20)	1(20)	1(20)	0(0)	3(60)	0(0)	0(0)
Feeling sluggish	1(20)	0(0)	0(0)	0(0)	0(0)	0(0)	1(20)	1(20)	1(20)
Swelling	0(0)	0(0)	0(0)	1(20)	1(20)	0(0)	2(40)	1(20)	1(20)
Body aches all ov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Feeling bad	0(0)	0(0)	0(0)	0(0)	0(0)	0(0)	0(0)	0(0)	0(0)
Painful arms and legs	0(0)	0(0)	0(0)	0(0)	0(0)	0(0)	0(0)	0(0)	0(0)
Painful body	0(0)	0(0)	0(0)	0(0)	0(0)	0(0)	0(0)	0(0)	0(0)
Waking up harder than before	2(40)	0(0)	0(0)	1(20)	0(0)	0(0)	1(20)	0(0)	1(20)
Feeling weak	2(40)	0(0)	0(0)	0(0)	1(20)	0(0)	1(20)	1(20)	0(0)
Drowsy and tiresome	1(20)	1(20)	1(20)	0(0)	1(20)	0(0)	2(40)	1(20)	0(0)
Being fretful	1(20)	0(0)	1(20)	1(20)	0(0)	0(0)	1(20)	0(0)	1(20)
Hate talking	1(20)	0(0)	0(0)	0(0)	0(0)	0(0)	0(0)	0(0)	0(0)
Palpitation	1(20)	0(0)	0(0)	0(0)	0(0)	0(0)	0(0)	0(0)	1(20)
Chilling	1(20)	0(0)	0(0)	0(0)	0(0)	0(0)	0(0)	0(0)	0(0)
Cold hands and feet	1(20)	0(0)	1(20)	0(0)	0(0)	0(0)	0(0)	0(0)	0(0)
Running a fever	1(20)	0(0)	1(20)	1(20)	1(20)	1(20)	0(0)	0(0)	0(0)
Rash appeared	0(0)	1(20)	0(0)	0(0)	0(0)	1(20)	0(0)	0(0)	1(20)
Itching	0(0)	0(0)	0(0)	0(0)	1(20)	0(0)	0(0)	0(0)	0(0)
Thirsty	0(0)	0(0)	0(0)	0(0)	0(0)	1(20)	1(20)	1(20)	0(0)
Dry mouth	1(20)	0(0)	0(0)	0(0)	0(0)	0(0)	1(20)	0(0)	1(20)

Values are expressed as n(%), Abbreviation; PM = Palmulgunja-tang group, TJ = Taeumjowi-tang group, YS = Yanggyuksanhwa-tang group

IV. 考察

본 연구에서는 四象人의 素證을 조사한 후 각 四象人을 太陰調胃湯, 涼膈散火湯, 八物君子湯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세 처방을 복용한 후 素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체질별 평소 素證 경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少陰人의 경우 땀과 관련해서는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이며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변은 1일 5~6회 보며 평소 식욕이 불규칙하고 평소 많이 먹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少陽人의 경우 땀을 흘린 후 피곤하지는 않으며 1일 배뇨횟수는 5~6회 정도 되며 평소 많이 먹는 편이며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太陰人의 경우 평소 식욕은 규칙적이며 먹는 양은 少陰人, 少陽人과 비교하였을 때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八物君子湯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

十四方』 가운데 하나로 少陰人의 表病 중 鬱狂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원문에 따르면 사람이 미친 것과 같아하는 것은 腎陽이 곤열한 것으로 八物君子湯으로 升補하여 치료한다³⁾. 八物君子湯을 복용한 少陰人에서는 다른 체질에 비해 더 많은 소화기 증상과 수면장애가 나타났다. 少陽人에서는 땀이 증가하고, 대변 횟수가 증가하며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속이 부글거리거나 쓰린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太陰人에서는 배변횟수 증가, 일부에서 대변이 묽어짐, 수면장애, 속 불편감, 복부 은통의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호전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少陽人에서 八物君子湯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전신통, 소화불량, 상부 열감, 대변이 묽음, 배변이상, 인후열감, 두통, 복중 불편감 등이 있

3) 『東醫壽世保元』 『腎受熱表熱病論』 6-11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困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으며, 太陰人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한출 증가, 몸이 무거움, 대변이 묽음, 복부 불편감, 복창, 기상시 부종, 인통, 구건, 흉민, 단기, 설사 등이 있다⁴⁾. 본 연구에서도 少陽人에서는 복중불편감, 배변 이상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고, 이외 부가증상으로 땀이 증가하고, 수면장애가 나타났고, 太陰人에서는 대변이 묽음, 복부 불편감,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고, 이외 부가증상으로 수면장애가 나타나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涼膈散火湯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 소개되어 있는데⁴⁾, 의 胸膈熱證을 治療하는 代表의인 處方이다. 涼膈散火湯을 복용한 少陰人에서는 땀, 소변, 소화, 수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변만 복용 전에 비해 약간 묽어졌고, 少陽人에서는 일부에서 땀을 흘린 후 상쾌해졌고 배변횟수가 증가하고, 낮잠이 많이 오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太陰人에서는 대부분에서 배변난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는 특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少陰人이 涼膈散火湯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속쓰림, 오심,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현훈, 안훈,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太陰人이 涼膈散火湯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복부 불편감, 복통, 설사, 배변난, 구건, 현훈 등이 있다⁴⁾. 少陽人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반응이 나타났으며, 少陰人의 경우에는 대변이 묽은 증상만이 나타나고 이외에 素證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太陰人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변난만 나타났고 이외에 素證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太陰調胃湯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에 기재된 처방으로, 黃疸, 傷寒, 時氣頭痛, 身痛, 無汗, 食滯痞滿, 腿脚無力 등을 주로 치료한다⁵⁾. 太陰調胃湯을 복용한 少陰

人에서는 일부에서 대변이 굳어지고 전보다 가늘고 양이 줄어들었으며 소변 횟수가 증가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잘 깨며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고, 少陽人에서 대변은 복용 전에 비해 굳어지고 일부에서 피부발진, 열이 남, 갈증이 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太陰人에서는 대부분에서 배변 횟수가 증가하거나 대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일부에서 배뇨 횟수가 증가하고 대부분에서 복용 전에 비해 일찍 잠이 오고 일부에서는 속이 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복부 은통이나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다. 太陰調胃湯을 복용한 후 少陰人에서는 수면장애, 심계, 흉민, 현훈, 소화불량, 복통, 식욕 감소, 복창, 오심, 구토, 대변이 묽어짐, 설사, 변비, 기력저하, 피로, 발한, 발열감, 피부건조 등의 증상이, 少陽人에서는 심계, 수면장애, 오심, 구토, 소화불량, 변비, 설사, 진전증, 발열감, 기력저하 등의 증상이, 太陰人에서는 수면장애, 소화불량, 변비, 설사, 구건, 구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¹⁾. 少陰人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太陰調胃湯에 대한 반응 대부분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부가적인 증상으로 배뇨 횟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少陽人에서는 대변은 굳어짐,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고 熱證의 일환으로 피부발진, 갈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太陰人에서는 배변이 어려운 증상과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고 부가적인 증상으로 배뇨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각 四象人이 타 체질 및 동 체질의 약물을 복용한 후 약물에 대한 반응이 素證의 변화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八物君子湯과 涼膈散火湯의 경우 김 등의 연구에서는 탕약을 1회 이상 복용하고 불량한 반응을 호소한 자를 연구대상을 하였는데¹⁰⁾, 본 연구에서는 산제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용 후 나타난 반응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太陰調胃湯의 경우 기존 김 등의 연구에서는 太陰調胃湯 탕약을 복용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 중 불량한

4)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10-24 “少陽人大腸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則 汗必不出也 少陽人汗者 自是陽弱也而 服涼膈散 病已則 此病即上消而 其病輕也”

5)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12-10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 氣短 結咳矣 忽焉 又添出一證 泄瀉 數十日不止 即

表病之重證者也 用 太陰調胃湯 加樗根皮一錢”

반응을 호소한 경우를 선별하여, 복용 전과 후의 반응이 기록된 차트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약물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것으로¹¹ 역시 탕약과 산제의 차이가 있으나 복용 후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 체질의 약을 복용하였을 때 少陰人에서 素證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고, 少陽人에서는 호전되는 형태의 素證 변화를 보였으며, 太陰人에서는 素證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각 체질 내에서도 개개인의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가 각 처방군 당 5명씩으로 매우 적으며 SCAT을 이용한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체질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을 복용한 기간은 4주인데 반응이 둔감한 피험자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기간이 짧아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전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물 선정시 임상시험을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엑기스제 중에서 약물을 선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약물 선정시 약물의 寒熱表裏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또한 다음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V. 結論

1. 각 四象人이 타 체질의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素證의 변화는 각 약물이 체질별로 작용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 각 四象人이 동 체질의 약물을 복용한 후 少陰人은 가장 많은 素證 변화를 보였고, 少陽人은 호전 반응을 보였으며, 太陰人에서는 素證에 큰 차이가 없었다.

VI.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2014-A0175-00005).

VII. References

1. Kim SM, Song IB.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0;12(2);67-77.(Korean)
2. Park YG, Hong HJ, Kim YH, Hwang MW. The Cross-sectional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1;23(2):240-253.(Korean)
3. Kim ST, Choi AR. A Study o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according to Soyangin's Major Constitutional Medicin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4;26(1):82-97.(Korean)
4. Jang ES, Baek YH, Park KH, Lee SW. The Difference of Digestion, Sweat, Stool, Urination, Drinking, Coldness and Hotne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Exterior and Interior Diagnosis.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2;24(1):43-53.(Korean)
5. Ham TI, Hwang MW, Lee TK, Kim SB, Lee SK, Koh BH et al. The Clinical Study on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Stroke In-patient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3):34-45.(Korean)
6. Kim K, Oh SY, Joo JC, Jang ES, Lee SW. Comparison of Digestion, Feces, Sweat and Urin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the 20s and 60s.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0;22(2):70-81.(Korean)
7. Kim JJ, Lee YS,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ing, Stool, Urine According to Taeyangsoyangin(Yangin) and Taeumsoeumin(Eum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5;17(3):82-90.(Korean)
8. Park HJ, Lee YS, Park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Sweat, Stool, Urine, Digestion) of

- Soyang·Soeumin and Taeyang·Taeumin in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18(1):107-117.(Korean)
9. Park BJ, Kwon JH, Lee JH, Lee EJ, Koh BH,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Palmulgunja-tang.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0;22(4):1-9.(Korean)
10. Kim HJ, Kim JY. A Clinical Report on the Adverse Reactions of Sasangin by the Prescriptions of Soeumin · Soyangi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8;20(3):107-117.(Korean)
11. Kim HJ, Kim JY. Clinical Report about the Adverse Reactions of Taeumin · Soeumin · Soyangin by Taeumjowi-tang.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6):1600~1605.(Korean)